

박용래 시의 미적 특질과 그 의미

백 은 시*

차 례

- | | |
|----------------------|---------------------------------|
| I. 서언 | IV.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결연
을 대신하여 |
| II. 생활 속의 자연과 향토 | |
| III. 정지의 시간과 주변성의 미학 |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과 그로 인한 박용래 시의 미적 특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특질들이 주류적 전통서정시들과 어떤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관조의 대상물도, 선형적 정신성을 발견하기 위한 매개물도, 그 불가해한 힘 때문에 정복해야 하는 대상도 아닌,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이다. 이러한 자연 인식을 통해서 그는 당대 농촌의 궁핍함, 그리고 향토적 물상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연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자연을 통해 전통을 발견하려 했던,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 지향에 따라 자연을 정신적 좌표의 한 축으로 설정했던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를 통해 그 유의미성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동국대

두 번째로 이 글은 박용래 시 특유의 미적 특질을 정지의 시간과 주변성의 미학으로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지의 시간은 풍경을 정물화시킴으로써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주변성의 미학은 ‘주변적인 것’의 단독성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상을 하나의 정물로서 포착하는 행위는 사물들을 명사형으로 제시하거나, 여백의 효과를 노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는데, 이는 주류적 전통서정시학이 표방한 무시간성, 초시간성과는 달리 탈시간성의 지평 위에서 대상들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냄으로써 특유의 미학적 성취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적인 것’에 대한 탐색 또한 특수성을 통해 보편을 환기하는 주류 전통시학의 방식이 아니라, 사물의 단독성을 발견함으로써 주변성의 미학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용래의 시는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를 통해 오히려 그 유의미성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연, 향토적 물상, 주류적 전통서정시, 정지의 시간, 주변성의 미학, 단독성, 대상의 명사화, 여백의 효과, 탈시간성.

I. 서언

전후의 시단에서 주목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편들과 전통서정시류의 시편들의 양극화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양 계열의 시들은 각각 그 정신적 지향과 당대에 대한 인식의 양상이 서로 달랐으며,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들은 이들의 계열을 대타적 대결구도의 양상으로 파악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대결구도를 인과론적 관계로 파악할 경우 그러한 논리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배가되는 듯하다.¹⁾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정당성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양 계열의

1)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

시들이 그토록 화해할 수 없는, 혹은 배타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전통서정시 계열에서 ‘전통’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전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기도 했지만, 당대에 물밑 듯이 들어오는 서구의 사조들(예컨대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등)로부터 기인한 정체성의 위기와의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시단의 모더니즘과 전통주의적 흐름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문학정신, 혹은 정체성의 모색에 대한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주의의 흐름 내부로 포괄되는 시인들 사이에서도 동질화시킬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모더니즘과 전통주의라는 대결양상 때문에 더욱 은폐되기 쉬웠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글에서 밝힐 박용래 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한편적으로, 전통서정시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조지훈, 서정주, 김동리의 시론들과 이러한 시론을 표방한 시들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들은, 유기체적 미학을 기초로 한 자연친화적 사상, 영원성에 대한 강조, 고전의 재발굴을 구체화한 신화나 설화 수용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이 표방한 ‘자연’이란 문명의 반대급부로서의 자연, 인류의 시원, 혹은 순수성의 표본으로서의 자연이며 이러한 자연은 원형적, 동질적 세계에의 동경을 통한 정신성의 강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정주의 경우는 ‘여성’, ‘꽃’, ‘하늘’과 같은 소재들을 사용하여 정신편향적 특성을 잘 드러낸 시인이다. 박용래에 대한 기존의 평가도 이러한 전후 전통서정시의 맥락에서 그의 시를 파악하려는 경향들이 대부분이다.

하, 1991, 86쪽. 한형구는 당대 시단을 모더니즘과 전통주의적 흐름으로 양분하면서 전통주의 편에서 ‘먼저’ 당대의 정신적 공황에 대한 복구의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그 뒤에’ 온 모더니즘 시, 즉 “새로운 시적 사유의 흐름”에 자리를 내주게 된 운명에 처했다고 하면서 양 계열의 관련양상을 인과론적 대결구도로 파악하고 있다.

박유미는 1950년대 전통서정시의 근원의식을 자연친근 의식, 여성성의 발현, 유토피아 지향의식, 감성과 음악성의 발현으로 특징짓고 이런 경향의 시인 중에 하나로 박용래 시를 분석한다.²⁾ 그러나 이렇듯 전통서정시 흐름의 한 경향으로 박용래 시를 파악할 경우 박용래 시 특유의 특질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박용래 시에서 나타난 자연은 주류 전통서정시에서 표방하고 있듯이 정신 편향의 한 표현물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자연이며, 가난하고 고단한 생활 그 자체를 하나의 자연물로 인식하는 육화(肉化)된 자연인 것이다.

이렇듯 박용래 시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히 규정보다는, 그의 시를 단순히 전통서정시류의 한 부분으로 파악할 때, 박용래 시는 비난과 찬사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서정시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그의 시는 상이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석주는 박용래 시의 “고향에는 당대의 숨결이 빠져 있어 당대 현실에서 비롯되는 실감의 부피가 없”으며, 그러한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응고된, 자폐적 시간이 고여있는 공간일 뿐이”³⁾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최승호는 근대 이후의 “서정적 동일성을 이루어내는 사상은(박용래를 지칭함-인용자) 하나의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며, 심지어 현실개혁의 의미로까지”⁴⁾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명표 또한 박용래 시를 “칼레의 시민의식”⁵⁾으로 규정하고 그의 시가

2) 박유미, 「1950년대 전통서정시 연구」, 성신여대박사논문, 2002.

3) 장석주, 「박용래, 한국적 정한의 세계를 향하여」, 『동서문학』, 2001, 여름, 317쪽.

4) 최승호, 「박용래론: 근원의식과 제유의 수사학」, 『우리말글』 20집, 2000, 12. 406-407쪽.

5) 여기서 ‘칼레의 시민’이란 로맹이 백년전쟁 때 포위당한 칼레시를 구출하기 위해 6명의 시민이 희생이 되어 형장으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조각한 것을 일컫는다. 또 박용래는 자신의 체험적 시론에서 「소나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맹의 「칼레의 시민」이 슬프면서도 아름답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용래, 『우리 물빛 사랑이 풀

“달관의 미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시인의 심리적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⁶⁾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박영우는 박용래의 시가 “한국시의 전통적인 리리시즘의 맥락을 새롭게 계승하였다”고 보고, “老莊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향토의 정감어린 현상을 담담하게 원초적 상태로 환원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생성, 소멸되는 사물의 無의 존재화에 경주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한다.⁷⁾ 노장사상과 박용래 시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듯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론들이 도출된 이유는 서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박용래 시를 전통서정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판단의 기초 위에 박용래 시의 시사적 위치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용래 시를 면밀히 읽어 보면, 주류적 전통서정시에서 나타나는 정신편향적 특성과 ‘질서’, 혹은 ‘중심’에 대한 열망보다는, 현재 자신의 생활, 혹은 과거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물상들과 자연물들에 대한 탐색, 그리고 잊혀져 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들이 거주하는 주변, 혹은 변두리에 대한 응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박용래 시에 대한 전제들과의 거리를 통해 박용래 시 특유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사실상 앞으로 분석될 대상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한 번씩은 다루어져 왔던 주제들이다. 그러나 박용래 시에 대한 대부분의 개별 작품론들이 박용래 시 특유의 미학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는 있지만, 그 논의들은 개별 작품론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박용래 시가 전후 시단에서 차지하는 시사적 위치, 특히 당대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관련성

꽃으로 피어나면》, 문학세계사, 1985, 114쪽.

6) 최명표, 「박용래 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집, 2003, 340쪽.

7) 박영우, 「박용래 시 연구」, 중앙대박사논문, 2001, 1쪽.

과 그 거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박용래 시의 특징들이 오히려 주류 전통서정시와의 거리를 통해 그 유의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II. 생활 속의 자연과 향토

1. 빈궁한 삶의 자연화

박용래의 시 전체를 읽고 나면 그 미세한 세부의 의미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자연’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소재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그의 시편 어디에서도 자연적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시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기존 연구에서 자연과 관련한 논의들이 많은 이유 또한 그의 시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자연적 풍광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매 시편들마다 각기 그 내포를 달리하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그의 시에서 나타난 자연의 양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간과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당대 주류 전통시학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본원적 현상태로서의 자연, 그리고 영원성의 매개물, 혹은 현실초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자연, 고답적 명상의 대상물로서의 자연과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⁸⁾ 물론 박용래의 시편들에서도 해석의 방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연적 대상물 그 자체만이 부

8)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을 당대 주류 전통시학과의 차이를 통해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박용래 시 특유의 자연 양상을 본고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전영철, 『박용래 시 연구』, 고려대석사논문, 2003. 진순애, 『박용래 시의 동일성의 시학』, 『현대시의 자연과 모더니티』, 새미, 2003. 엄경희,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태도』, 『작가연구』 12호, 2001, 하반기.

각되어 나와 타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들도 존재하며, 특정 식물에 자아를 투사하여 자연적 대상물과의 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시들도 존재한다. 또한 자연이 하나의 풍경으로 소묘되어 직관과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 경우의 자연조차도 관념화되거나 숭고함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당신의/지평/아리는/기류/타고/우는/까마귀떼”와 같이 ‘나’와 ‘당신’의 발끝, 혹은 지평 위에서 도는 자연, 즉 “액자 없는 그림”⁹⁾과 같은 자연이 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고도의 선형적 정신성을 환기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발 딛고 있는 생활공간과 일체를 이루는, 그리하여 ‘액자’와 같은 프레임 안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용래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이 당대의 궁핍한 삶의 모습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가난을 미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난으로 인해 궁핍해진 농촌 현실을 폭로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문명화된 현실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자연물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오는 봄비는 겨우내 물뿔던 김칫독 자리에 모여 운다//
오는 봄비는 헛간에 엮어 단 시래기 줄에 모여 운다//
하루를 섬섬히 벼들눈처럼 모여 서서 우는 봄비여//
모스러진 돌절구 바닥에도 고여 넘치는 이 비천함이어.

<그 봄비> 전문

(2)낙엽 저
비인
雜木林은
허술한

9) 박용래, <액자 없는 그림>(1979), 『먼 바다』, 창작과 비평, 1984, 119쪽. 앞으로 본고에서 다룬 박용래의 시는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마을
食後 풍경,
(...중략...)

논길 살얼음에 온다

候鳥가 온다

낙엽져
별거숭이
雜木林은
朝夕으로

쓸쓸한 마을
초가 지붕.

<雜木林> 부분

(1)은 “비천”하고 궁핍한 농촌의 삶을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란 실상 화자가 말하고 있는 “김칫독”이나 “시래기 줄”, “돌절구 바닥”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 위로 내린다. 그러나 화자는 비가 내리는 장소를 김칫독, 시래기 줄, 돌절구 바닥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풍경을 담아내는 동시에 그러한 장소에 내리는 비를 그러한 공간, 즉 농촌, 혹은 어느 가난한 집의 부엌으로 생각되는 공간의 “비천함”과 동일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비천함이 고여 넘친다는 표현을 통해 궁핍과 부족함, 즉 풍요롭지 못함을 나타내는 어휘인 “비천함”을 “넘친다”라는 풍요함, 가득함을 나타내는 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러한 비천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봄비’라는 자연현상, 혹은 자연물은 가난의 표상인 ‘비천함’과 동질화되고 있는 것이다.

(2)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늦가을, 혹은 초겨울쯤으

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적 배경 아래에서 잡목림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는 “허술한 마을의 식후 풍경”과 “쓸쓸한 마을의 초가지붕”을 떠올린다. “벌거숭이” 잡목림의 “비인” 성질은 “허술한 마을 식후 풍경”과 “초가지붕”이 이야기하는 빈궁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가난한 삶의 스산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삶의 풍경들이 ‘잡목림’으로 은유되고 있는 것은 한 종이 아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잡거하는 숲의 속성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 사는 가난한 농촌의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박용래는 척박한 삶의 빈궁함을 자연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시선은 결코 그러한 풍경들에 비판의 시선을 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심히 생활과 자연과의 일치성만을 엿보고 있을 뿐이다. 빈궁한 삶을 노래했다고 해서 문명 비판이나 현실변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 혹은 이웃의 빈궁한 삶, 즉 생활 속에서 자연을 발견한다.

2. 향토적 물상들에 대한 응시

빈궁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발견하는 앞선 시편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박용래는 향토적 물상들을 자연화한 시들을 많이 썼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향토적 물상들’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자연화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향토를 발견하는 일은 일단, 국토를 발견하는 일과 비견될 수 있다. 해방이전의 식민지 한국에서는 ‘국토’를 발견하는 일이 우세했지만, 해방이후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로 인한 이념적 일원화와 급격한 중앙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관료체제 하에서는 ‘향토’의 발견을 통해 민족을 상상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특히 도시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향한 박용래의 이력은 도시의 번잡, 그리고 관료적 시스템과 공간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주류적 문단과의 연관 속에서 박용래 시의 향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때, 주목되는 것은 서정주로 대표되는 전자의 시편들이 추상적, 관념적이며, 정신성을 표방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자연에 대한 찬미를 통해 민족의 원류와 ‘전통’을 발견했다면, 박용래의 경우는 생활과 인접한 구체화된 자연의 시화를 통해 ‘향토’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도 전자가 설화적 모티프를 차용하거나, 설화적 인물들을 시적 화자로 도입하는 서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후자는 압축과 병렬을 통해 향토적 물상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고정화시키거나, 명사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박용래의 시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형태를 취할 때조차도 과거에서 길어 올린 사물들에 대한 비교(秘敎)적 찬탄이나 당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히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호명의 차원에서 그친다. 그의 시를 ‘초월지향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으로만 포괄되지 않는 잔여물들이 그의 시에는 많다.¹⁰⁾ 특히 그의 시의 미덕은 후술하겠지만 정지된 시간의 포착을 통해 사물들의 존재를 그 자체로 사유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박목월이나 서정주 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시간성, 혹은 초시간성과는 달리, 그의 시는 탈시간성의 지평 위에 존재한다. 즉 박용래가 향토적 물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자연적 현상이나, 자연물로 동화시키게 된 저변에는 주류 전통서정시와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꼬이고 꼬인 藤나무 등걸//

깨진 고령토 花盆//

10) 정한용은 박용래의 「그 봄비」를 분석하면서, 삶의 ‘여기’에서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저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시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 봄비」의 마지막 행은 초월적 이상에 대한 연상을 유발하기보다는 단지 비천함의 상태를 고조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지향성」, 경희대박사논문, 1996, 90쪽.

샷갓머리 썩은 배추 움//
 떠받친 빨랫줄//
 紙鷲 낚던 손//
 빛 바랜 宿根草//
 서릿발 내린 斜面//
 복판에 이마 부비며 피는 마을 사람들//
 貯水池의 물안개//
 비탈에 지던 落差

<落差> 전문

초겨울 시골 마을의 한 마당풍경과 그 건너로 보이는 저수지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고 있는 위의 시는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상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향토적 물상들을 무심히 관찰하고 있다. ‘등나무’, ‘숙근초’, ‘서릿발’, ‘저수지’, ‘물안개’와 같은 대상들은 그 자체로서는 자연물들이지만, 이 시에서 그것들은 ‘고령토 화분’, ‘배추 움’, ‘빨랫줄’, ‘지연(紙鷲)’과 같은 향토적 물상들과의 병치를 통해 생활 속의 자연으로 화하고 있다. 특히 서리를 맞아 빛바랜 숙근초가 핀 모양을 “마을 사람들”로 대체하고 있는 시인의 인식은 자연과 동화된 인간에 대한 상상을 보여줌으로써 시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를 노장사상의 “무위자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¹¹⁾ 노자에게서 ‘자연’은 산이나 바다처럼 의식적으로 찾아가 만나는 자연이 아니라 무위, 혹은 만물을 관류하고 있는 법칙과 질서를 의미하는 도(道)로서의 자연이다.¹²⁾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박용래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향토적 물상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이며, 심지어 그것과의 동화 가능성을 내장한 자연이다.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의 인간과 조화

11) 박유미는 박용래 시의 자연의 의미가 노자가 말한 “도법자연”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박유미, 앞의 글, 119-120쪽.

12) 김형효,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1, 2장 참조.

를 이루는 자연이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구체화된 사람들과 동화된 자연인 것이다.

Ⅲ. 정지의 시간과 주변성의 미학

1. 정물로서의 풍경-대상의 명사화, 혹은 여백의 의미

하나의 풍경을 정물화의 형태로 그린다는 것은 그 풍경을 이루고 있는 사물들의 생명력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물들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내적 필연성이 수반될 때 그러한 정물로서의 풍경은 새로운 인식론적 차원을 열어놓는다. 앞선 논의에서 필자는 서정주의 영원주의가 지닌 무시간성, 초시간성과 구별하여 박용래 시의 탈시간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서정주에게서 발견되는 무시간성, 혹은 초시간성이 변화를 통해서만 진보를 가능케 하는 근대적 삶에 대한 대타의식으로부터 비롯한 원형의 연속성, 혹은 영원한 본질을 기억해 내는 작용이라면,¹³⁾ 박용래의 시에서 나타난 시간은 직선적인 근대적 시간에 대한 대타의식으로부터 기인한, 그리고 이에 따라 영원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시공간의 질서를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는 정지의 시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시간은 사물, 혹은 대상을 초월하려는 의지보다는 사물들 그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사유하도록 만든다. 또한 정지된 순간의 포착은 이를 포착한 주체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대상과의 미적거리를 유지시킨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 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밑 달빛은 쌓이리//
 밭목을 벗고 물을 건느는 먼 마을//

13)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작가세계』, 1994, 봄, 126-128쪽.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겨울밤> 전문

위 시는 “잠을 자”는 “바람”과 “잠 이루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심경을 대비시키면서 “고향집”의 정경을 “눈”과 “달빛” 그리고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도입하여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리.”라는 술어의 사용으로 유추되는 ‘회고’의 형식은 향토적 자연으로서의 고향을 통해 근원의 이미지, 혹은 “근원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길어 올린 향토적 사물들을 자연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바로 “근원성이라는 상실된 자연성”¹⁴⁾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초월지향성, 근원성, 자연 친화력, 생명의식 등등의 수사들은 전통 서정시를 해석하는 데에 동원되는 일종의 클리셰에 가깝다.

특히 박용래의 위의 시와 같은 경우 “고향집, 마늘 밭, 추녀밧 달빛, 마당귀 바람” 등의 사물들은 고향의 이미지를 통한 초월적 시원성, 근원적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기보다는 눈이 쌓인 마늘 밭과 달빛이 쌓인 추녀 밧, 그리고 잠을 자는 마당귀 바람이라는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독립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소소한 대상들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것들이 놓인 장소인 고향집은 “밭목을 벗고” 건너는 곳, 즉 화자가 직접 밭을 딛고 물을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체화된 공간이다.

각각의 대상들이 놓인 고향집은 선형적 정신성을 전제한 명상의 대상으로 상정되지도, 고향에 대한 집단적 그리움을 유도함으로써 문명 비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지도 않는다. 다만 향토적 물상들을 그들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리고 한 연이자 한 행 속에 그것들의 양상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그것들이 놓인 시공간을 독립적으로 포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때 그 대상들은 ‘소소한 것들’이라는 집합의 한 부분으로, 즉 보통명사로 환원되지 않는다. “마늘 밭, 추녀 밧, 마당

14) 진순애, 앞의 논문, 177쪽.

귀” 등은 그것들에 부여된 고유한 이름을 가진 보통명사이지만 그것들은 시인의 호명행위를 통해 보통명사의 지위를 탈각하고 고유명을 통해 실현되는 단독성을 확보하게 된다.

모과나무, 구름
소금 향아리
삼살개
개비름
主人은 不在
손만이 기다리는 시간
흐르는 그늘
그들은 서로 말을 할 수 없다
다만 한 家族과 같이 어울려 있다

<뜨락> 전문

인용된 시는 주인이 없는 뜨락의 풍경을 한 폭의 정물화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놓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사물들은 “모과나무, 구름, 소금 향아리, 삼살개, 개비름¹⁵⁾”과 같은 자연물들과 향토적 물상들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앞서 언급했듯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자연, 혹은 전통의 한 제재로서의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락”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 속에 침윤된 사물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물들이 세부적 묘사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들은 명사형의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대상을 명사형의 형태로 제시할 때, 제시의 주체, 혹은 호명의 주체는 그러한 풍경(대상)들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렇듯 박

15) 비름과의 일년초. 높이 30cm가량. 밀동에서 가지가 갈라지고, 달걀 모양의 잎이 어긋나게 나는데 잎자루가 깊. 6~7월에 녹색의 잔꽃이 이삭 모양으로 피며, 열매는 포과(胞果)임. 논밭이나 길가에 나는데, 어린잎은 먹을 수 있음.

용래의 시에서 주관과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그의 시가 소멸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¹⁶⁾ 이러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개별 사물들이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자족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주인을, 혹은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다림은 그들이 각각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기다림의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러한 흐름은 “그늘”, 즉 여백의 울림, 혹은 정지된 시간의 포착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이렇듯 박용래의 시에 나타난 정지의 시간은, 사물들을 과거로부터 길어 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지향성으로서 발견했던 주류적 전통서정시의 방식들과는 달리, 현재적 순간의 멈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백을 통해 실현된다.

2. ‘주변적인 것’의 단독성과 그 의미

근대적 사유가 전제하고 있는 인식론적 틀 중에 하나로 분할의 사고를 들 수 있다. 고대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원환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근대인은 분할의 체계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한다.¹⁷⁾ 그러한 분할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분법이라고 할 때, 선/악, 진/위, 이성/광기, 문명/자연과 같은 수많은 이분법적 구별들은 문명이 진행함에 따라

16) 김재홍, 「박용래, 전원상징과 낙하의 상상력」, 『한국현대시인비판』, 시와시학사, 1994.

송재영, 「박용래론-동화, 혹은 자기소멸」, 『현대문학의 옹호』, 문학과지성, 1979. 이견청, 「소멸의 미학, 견고한 언어-박용래의 시세계」, 『현대시학』, 2002, 3.

17) 『말과 사물』에서 근대인의 에피스테메를 분할의 사고로, 고대인의 에피스테메를 원환적 사고로 파악한 푸코는 『담론의 질서』에서 분할의 체계를 금지, 분할과 배척, 진위의 대립으로 유형화하면서 분할의 내재적, 외형적 형태와 권력의 유착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탐색한다. 미셸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 출판부, 2000, 10-17쪽.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은 그 ‘다른 하나’를 금지하고 배척하는 동일성의 논리 속에서 야만성을 노출하는 모순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 틀은 현대인의 사고 패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두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박용래의 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잊혀지는 것들, 보잘 것 없는 것들, 애써 찾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같이 주변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의미론적 위상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하나의 가능한 사유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박용래의 시가 이와 같은 분할의 체계를 내면화하여, 그 ‘다른 하나’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장소와 순간들을 포착해 낸다. 다시 말해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주변적인 것들’의 양상은 그것이 대타적으로 삼고 있는 개념적 대립물들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 ‘주변적인 것들’이란 단독성을 지닌다.

어떤 사물이 특수하다는 것은 그 사물이 속한 일반성 속에서 그것의 특수함을 지칭하는 것, 즉 그 사물이 속한 집합 중에 하나일 때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것은 그것과 같은 위상에 놓인 다른 어떤 사물과의 차이를 통해 인식된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단독적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 특정한 집합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일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외국어뿐 아니라 모국어에서도 번역될 수 없다. 즉 그것은 차이의 체계(랑그)로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성은 고립되거나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며 고유명 속에서 출현하는데 고유명은 ‘다름 아닌 이것’이라는 고정 속에서 다른=많은 것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형태로 ‘이것’을 보존한다. 어떤 것의 단독성은 우리가 그것을 고유명으로 부르는 한에서만 출현하며 이

런 맥락에서 고유명은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되어 있다.¹⁸⁾ 그렇다면 박용래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물상들 및 ‘주변적’ 대상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단독성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저녁눈>전문

- (2) 한때 나는 한 봉지 숨과자였다가
 한때 나는 한 봉지 붕어빵였다가
 한때 나는 坐板에 던져진 햇살였다가
 중국집 처마밑 鳥籠 속의 새였다가
 먼 먼 輪廻 끝
 이제는 돌아와
 五柳洞의 銅錢.

<五柳洞의 銅錢>전문

(1)은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을 ‘주변적인 것들’과 친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 대상들은 “말집 호롱불 밑, 조랑말 발굽 밑, 여물 썬 소리, 변두리 빈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사물들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들 중의 하나로서, 즉 그것들이 놓인 특정한 계열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각각의 사물들은 그것의 범주가 지닌 ‘보편성/특수성’의 관계 속에서 가늠되기보다는 그것 이외의 다른 사물로는 대체될 수 없는 단독성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강렬한 사건으로서

18) 가라타니 고진은 특수성과 단독성의 차이를 언급하며 단독성이 고유명의 출현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점을 논한 후, 고유명의 조건을 ‘확정기술’로의 환원불가능성을 내재한 ‘가능세계’에 대한 고려로부터 타진한다. 가라타니 고진, 권기돈 역, 『담구 2』, 새물결, 1998, 11-43쪽.

체험된다. 왜냐하면 화자는 같은 어구의 반복을 희생하고서라도 각각의 사물이 오직 그것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한 행임과 동시에 하나의 연 속에 그 사물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사물들의 ‘오직 그것임’은 그것이 아닌 다른 사물들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형태 속에서 ‘다름 아닌 그것’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시어 사용을 통해 시인이 보존하려 했던 것은 “문명의 거센 물결에 밀려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토속적 세계”¹⁹⁾, 즉 보편적 문맥 속에서의 자연물 및 대상물이라기보다는 고유명을 통해 실현된 개개 사물들의 단독성이다. 시적 화자가 포착한 개개의 사물들은 화자의 ‘호명 행위’를 통해 다른 것으로의 대체불가능성과 일회성으로 경험되며 하나의 세계(연) 속에서, 그리고 화자와의 내밀한 소통 속에서 고유명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사물의 성격을 지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변적인 것’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택하긴 했지만 이러한 개개의 사물들이 지닌 단독성은 박용래 시 특유의 미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 시는 박용래의 순환적 시간관을 드러낸 대표적인 시로 평가되었지만,(물론 이런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시에서 제시된 시어들의 사용 방식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숨과자, 붕어빵, 좌판 위의 햇살, 조롱 속의 새, 오류동의 동전”과 같은 사물들은 하나의 향으로 묶일 수 있는 보편적 의미계열을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각각의 사물들은 보통명사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보통명사라는 하나의 집합 중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화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우연적으로 선택된, 즉 가능세계로부터 도출된 고유명으로서의 지위를 한 행 속에서 구현한다. 이 시 속에서 각각의 사물이 한 행 속에서 하나의 강렬한 사건으로서 체험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이렇듯 각 사물들이 고유명의 형태 속에

19) 차호일, 「박용래의 자연 수용양상과 시 교육에의 시사」, 『한국문예비평연구』 25집, 2008, 68쪽.

서 단독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분할의 사유 체계로는 포착될 수 없는 ‘주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용래의 시세계를 주변성의 미학이라 명명할 수 있다면,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V.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결연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과 그로 인한 박용래 시의 미적 특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관조의 대상물도, 선형적 정신성을 발견하기 위한 매개물도, 그 불가해한 힘 때문에 정복해야 하는 대상도 아닌,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이다. 이러한 자연 인식을 통해서 그는 당대 농촌의 궁핍함, 그리고 향토적 물상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연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자연을 통해 전통을 발견하려 했던,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 지향에 따라 자연을 정신적 좌표의 한 축으로 설정했던 주류적 전통서정시와의 거리를 통해 그 유의미성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용래 시에서 발견되는 향토성은 기존의 논의에서 대체로 시작 원리나 기법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거나 전통서정시의 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전후의 폐허 위에서, 급격한 중앙의 산업화로 인한 새로운 기술관료체제 속에서 그는 왜 ‘향토적 물상들’을 응시하는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향토’에 대한 관심은 당대 ‘전통’ 논의의 한 기류로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박용래의 시의 시사적 위치를 전통서정시의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한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의 시가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했을 가능성, 즉 민족통합과 전통의 발견이라는 사업에 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가담했었을 가능성(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류적 문단과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해 갔는가라는 점이다.

당시의 민족통합과 전통의 발견은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만큼 문인들 또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기념비적 역사물들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를 전통으로 삼고자했던 욕망이 강했다. 이러한 욕망의 문학적 형식은 과거를 현재화하거나 그렇게 상기된 과거를 통해 미래적 방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박용래의 시편들에서도 이렇듯 시간적 층위에서 ‘민족적 특수성과 인류적 보편성’이 추구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실상 당대에 이러한 공동의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문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 기억을 포착한다’는 것은 과거가 ‘현재 그 자체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요컨대 현재에서 미래로 향한 시간성에서 소외되고, 문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되어 버린 그 순간에서부터 과거를 붙잡아 다시 기억에 남기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의 극히 절박한 관심사로 바꾸어 가는 기억의 변증법으로서의 사회실천이다.²⁰⁾

요네야마 리사가 지적하고 있듯 이처럼 과거를 현재화하는 작업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의 극히 절박한 관심사로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문인들, 특히 전통서정시계열에 속하는 문인들의 시적 형식이 이렇듯 절박한 관심사로부터 과거의 현재화를 시도했다고 할 때, 박용래 또한 이러한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귀향이후의 삶에서 (비록 징후적인 파악이지만) 단지 위기감, 절박함, 불안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위기감, 절박

20) 요네야마 리사, 「기억의 미래화에 대해서」, 코모리 요이치, 타카하시 테즈야 편, 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1999, 288쪽.

함, 불안감이 전제하고 있는 자아, 혹은 주체에 대한 감각이 지극히 미약했다.

그의 시에서 시적 화자가 구체적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들은 ‘나’를 주어로 삼고 있는 몇몇 시편들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듯 주체, 혹은 자아에 대한 감각이 미약하다는 사실은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형의 대부분이 술어보다는 명사나 명사형 어미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술어형의 문장, 혹은 구문이 말하는 주체, 혹은 쓰는 주체의 의지와 의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형태라면, 명사나 명사형 어미로 쓰인 구문이나 문장의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체의 존재감이 미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¹⁾

두 번째로 이 글은 박용래 시 특유의 미적 특질을 정지의 시간과 주변성의 미학으로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지의 시간은 풍경을 정물화시킴으로써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주변성의 미학은 ‘주변적인 것’의 단독성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상을 하나의 정물로서 포착하는 행위는 사물들을 명사형으로 제시하거나, 여백의 효과를 노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는데, 이는 주류적 전통서정시학이 표방한 무시간성, 초시간성과는 달리 탈시간성의 지평 위에서 대상들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냄으로써 특유의 미학적 성취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적인 것’에 대한 탐색 또한 특수성을 통해 보편을 환기하는 주류 전통시학의 방식이 아니라, 사물의 단독성을 발견함으로써 주변성의 미학

21) 이와 관련하여 본고와 같은 맥락에서 박용래 시를 분석한 글로는 장동석과 서정학이 있다. 장동석은 “박용래 시에선 시작품의 진술 내용이 담고 있는 대상에 대해 화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세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무심한 태도를 지적하였고, (장동석, 「박용래 시 연구」, 『국제어문』 39집, 2007, 4, 169쪽.) 서정학은 박용래 시에 나타난 응축과 생략 그리고 즉물적 이미지의 제시를 통한 시적 형상화 방법이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한다고 언급하였다. (서정학, 「박용래 시의 특질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25 호, 2007, 4, 252쪽.)

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주변적인 것들’의 양상은 그것이 대타적으로 삼고 있는 개념적 대립물들을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박용래의 시 속에서 명명된 각각의 사물들은 고유명의 형태로 제시되는 효과를 통해 단독성을 확보함으로써 독특한 의미론적 위상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박용래의 시는 주류적 전통서정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상들의 발견과 시어의 새로운 사용 방식을 통해 오히려 그 유의미성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박용래, 『먼 바다』, 창비, 1984.

박용래, 『우리 물빛 사랑이 풀꽃으로 피어나면』, 문학세계사, 1985.

2. 단행본 및 논문

고형진, 「한국적 서정시의 형식적 깊이」, 『또하나의 실재』, 새미, 2003.
11-31쪽.

권혁웅, 「박용래 시 연구-비유적 특성을 중심으로」, 『작가연구』 13호,
2002, 상반기. 197-215쪽.

김 선, 「박용래 론-그의 시의 함축성에 관하여」, 『열린문학』, 2002, 2.
59-74쪽.

김석환, 「박용래의 <저녁눈>과 시의 효용」, 『제3의문학』, 2001, 겨울.
144-149쪽.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사 연구』, 일지사, 1983.

김재홍, 「박용래, 전원상징과 낙하의 상상력」, 『한국현대시인비판』, 시와
시학사, 1994. 480-494쪽.

김현자, 「한국 자연시에 나타난 은유 연구」, 『한국시학연구』 20호, 2007,
12. 249-275쪽.

김현정, 「정훈과 박용래의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한국언어문학』 50집,
2003, 5. 155-175쪽.

김형효,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박영우, 『박용래 시 연구』, 중앙대박사논문, 2001.

박유미, 『1950년대 전통서정시 연구』, 성신여대박사논문, 2002.

서정학, 「박용래 시의 특질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25호, 2007, 4.

233-261쪽.

송재영, 「박용래론-동화, 혹은 자기소멸」, 『현대문학의 옹호』, 문학과지성, 1979. 64-73쪽.

신철하, 「<저녁눈>에 대하여」, 『국제어문』, 2003, 9. 149-175쪽.

엄경희, 「박용래 시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태도」, 『작가연구』 12호, 2001, 하반기. 284-301쪽.

이건청, 「소멸의 미학, 견고한 언어-박용래의 시세계」, 『현대시학』, 2002, 3. 208-224쪽.

이경애, 「박용래 시의 생명지향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61집, 2007, 6. 253-275쪽.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작가세계』, 1994, 봄. 114-130쪽.

장동석, 「박용래 시 연구」, 『국제어문』 39집, 2007, 4. 167-191쪽.

장석주, 「박용래, 한국적 정한의 세계를 향하여」, 『동서문학』, 2001, 여름. 314-321쪽.

전영철, 「박용래 시 연구」, 고려대석사논문, 2003.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지향성』, 경희대박사논문, 1996.

진순애, 「박용래 시의 동일성의 시학」, 『현대시의 자연과 모더니티』, 새미, 2003. 163-182쪽.

차호일, 「박용래의 자연 수용양상과 시 교육에의 시사」, 『한국문예비평 연구』 25집, 2008, 4. 59-85쪽.

최명표, 「박용래 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집, 2003. 335-355쪽.

최승호, 「박용래론: 근원의식과 제유의 수사학」, 『우리말글』 20집, 2000, 12. 405-429쪽.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59-108쪽.

가라타니 고진, 권기돈 역, 『탐구 2』, 새물결, 1998.

미셸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 출판부, 2000.

요네야마 리사, 「기억의 미래화에 대해서」, 코모리 요이치, 타카하시 테츠야 편, 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1999. 278-296쪽.

<Abstract>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ark,
Yong-rae's poems and those significance

Baek, Eun-Si

In this thesis, it is evaluated what is the cognizance of nature in Park, Yong-Rea's poetry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duced by the cognizance. At first, the nature cognized by him is not an object of contemplation, not a medium for priori spirit, and not something to be conquered because of the impenetrable power. He recognizes the nature just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cognizance of nature, he could naturalize contemporary rural destitution and local objects just as well. These expresses of academic significance, differed from the mainstream faction of traditional lyrics which have tried to define the tradition through the nature and to set up the nature as an axis of spiritual coordinate.

An distinc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Park, Yong-Rea's poetry, in here, also was prescribed as an aesthetics of the freeze-frame and a poetics of the marginality. Concretely, the aesthetics of the freeze-frame was revealed as through naturalizing a landscape and the poetics of the marginality was revealed as through the singularity of "marginal existence".

The literary act to seize an object as a still-lifes was appeared in his works by nominalization of an object and by providing a blank space, that could be distinctive literary achievement as through

disclosing a connection of each object on the thread of departing time properties in contrast with transcending time properties advocated by the mainstream faction of traditional lyrics. “marginal existence” also was explored as through detecting the singularity of an object unlike awakening the universality through particularity advocated by the mainstream faction.

Key Words : the nature, local objects, traditional lyrics poetics, marginality, singularity, nominalization of an object, blank space, departing time properties.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